

현장서 잔뼈 영업통... 혁신 통한 수익 강화·디지털화 '과제'

차기 대구은행장에 임성훈 부행장
오랜 영업·점포관리 내공 강점
중소기업 금융수요 해소 목표



임성훈 차기 대구은행장. /DGB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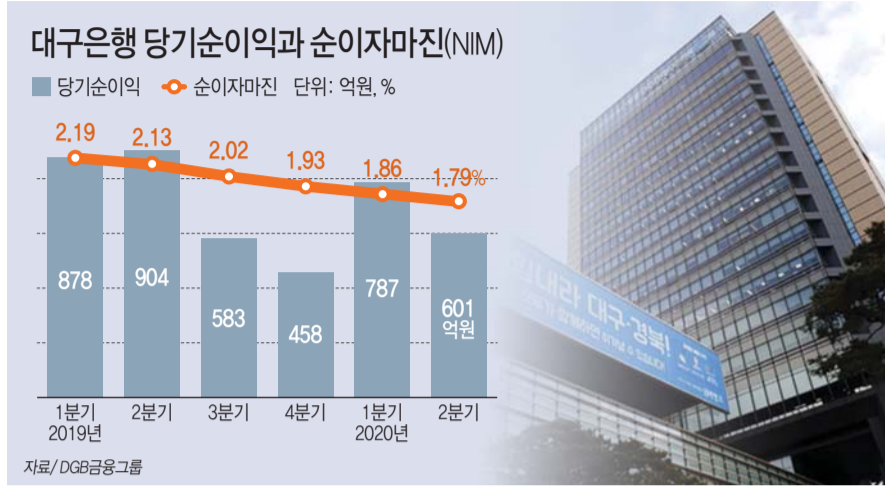
제13대 DGB대구은행장에 임성훈 부행장이 선임됐다. 거점지역에 대한 영업발판을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빨라지고 있는 디지털 전환속도에 발맞춰 수요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지가 과제로 지목된다.

DGB금융그룹은 3일 그룹 임원추천위원회와 대구은행장 임원추천위원회,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임성훈 부행장을 차기 대구은행장으로 결정했다.

통상 대구은행장 선임은 그룹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하면 대구은행장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해 1개월 가량 소요된다. 코로나19재확산으로 금융환경이 불안정해지자 조기에 리더십 문제를 마무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행장은 1963년생으로 대구중앙고·영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대구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대구은행 삼익뉴타운지점장, 황금동지점장, 마케팅부 추진부장, 포항영업부장, 경산영업부장을 거쳐 공공금융본부장을 역임했다.

임 행장은 오랜 기간 영업 업무를 하며 점포관리를 총괄했던 내공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강점이 부각돼 선임됐



다는 후문이다. 현재 대구은행의 거점지역인 대구, 경북지역은 코로나19로 경기둔화가 지속되며 기계, 섬유, 첨단의료산업과 관련한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대구지역의 제조업 생산지수를 보면 4월 기준 85.4%로 지난 2017년(100.3%)과 비교해 14.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제조업 재고지수는 109.4%로 지난 2017년(107.5%) 대비 1.9%포인트 상승했다. 대구은행은 임 행장 취임 이후 중소기업의 금융수요를 해소하고 거점지역의 영업 발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포석이다. 코로나19로 빨라지고 있는 디지털 전환속도에 발맞춰 수요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당기 순이익은 1388억원으로 지난해(1782억원)와 비교해 22.1%(394억원) 줄었다.

저금리로 순이자마진(NIM)도 하락했다. NIM은 2분기 기준 1.79%로 1년새 0.4%포인트가 떨어졌다. 저금리로 이자익 기반이 약해진 부분을 디지털화를 통한 수익구조 다변화가 과제다.

때문에 지주사내 계열사와의 협업 필요성도 제기된다. 올해 2분기 DGB하이투자증권은 963억원의 순영업수익을 달성했다. 지난해(659억원) 대비 304억원 늘었다. 수익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선비은행계열사와 함께 디지털화를 통해 소비자 자산과 라이프스타일,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포트폴리오 상품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과거 대구은행의 독점적 영역이던 중소기업 등을 공략하면서 입지도가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며 "중소기업 영업을 강화하고 비은행 계열사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대구은행의 수익구조가 다각화돼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중소 대출 비중 ↑... 은행 건전성 우려 증가

5대 시중은행 기업대출 706조
전년대비 약 39조5977억 증가
銀 기업대출 연체율도 증가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은행들의 기업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한시적으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유예 조치가 끝나 부실이 수면위로 부상하기 시작하면 은행의 부실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총 705조 9696억원으로 전년(631조865억원)보다 74조8831억원 늘었다. 그 중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406조276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9조5977억원 증가했다. 대기업대출이 7월 기준 161조3390억원으로 전년(141조1245억원) 대비 20조2145억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대출이 급증했다.

(5대 시중은행 연체율) /각사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
| 총 연체율 | 0.318 | 0.332 | 0.29 | 0.302 | 0.328 | 0.272 | 0.31 |
| 기업대출 연체율 | 0.366 | 0.384 | 0.326 | 0.334 | 0.346 | 0.314 | 0.364 |
| 가계대출 연체율 | 0.268 | 0.276 | 0.252 | 0.266 | 0.28 | 0.23 | 0.252 |

특히 은행들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이 또 다시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매출타격이 불가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은행권을 상대로 2차 소상공인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5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 5대 시중은행의 7월 말 대출 연체율은 0.23~0.36%로 집계됐다. 지난 6월말(0.21~0.31%)보다 0.02%포인트(p) 증가했다. 이 중 기업대출 연체율은 7월 말 0.2~0.48%로 전달(0.18~0.38%)과 비교해 0.1%p

높았다. 가계대출의 7월 말 연체율이 0.22~0.26%인 가계대출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한시적으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유예 조치가 끝나 부실이 수면위로 떠오르면 은행의 부실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대 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여신실적자료에 따르면 만기연장대출(재약정 포함) 35조792억원, 기업 분할 납부 유예액과 이자유예 금액이 각각 4조2800억원, 308억원이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빚으로 버티다 만기연장 조치가 끝나 줄 폐업할 경우 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유리 기자

우리은행 AI 모니터링 활용 보이스피싱 예방

의심거래 실시간 탐지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고객의 금융거래 데이터 중 금융사기 의심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사기가 복잡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함에 따라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스템 재구축에 착수했다. 이에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지난 1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고도화로 비대면거래까지 포함

한 모든 금융거래를 정밀하게 탐지해 효과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종 수법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가 발생하면 AI를 통해 신속하게 인지해 유사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을 결합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고도화된 전기통신금융사기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위협으로부터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ysl@

하나은행, 정확도 높은 AI 챗봇 서비스

'하나원큐' 앱 최적화

하나은행이 하이뱅크의 상담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하나원큐' 앱에 최적화된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하이(HAI)'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하이(HAI)는 지난 3월부터 하나금융융합기술원과의 협업을 통해 자체 개발한 자연어처리 AI기술이 적용됐다. 기존 은행업무 관련 상담 지식을 확대해 챗봇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챗봇의 상담기능을 강화했다.

하이(HAI)는 금융 관련 답변 뿐만 아니라 손님과의 일상대화에서도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하나원큐' 앱에서 손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챗봇에 문의할 수 있도록 화면에 배치해 손님의 사용성과 편의성도 향상시켰다.

염정호 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장은 "최근 손님의 언택트 금융서비스 니즈를 반영해 AI챗봇을 통해 24시간 언제라도 금융업무를 처리하고, 비대면 환경에서도 손님이 직원과 대화하듯 편리



하게 이용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향후 은행 업무뿐만 아니라 하나금융그룹 각 관계사의 금융업무 문의를 함께 응대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해외 현지금융컨설팅 등

신한은행은 지난 1일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월드옥타)와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한은행과 월드옥타의 해외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통해 양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진행됐다. 신한은행은 20개국 153개 해외 네트워크에서 검증된 신한은행의 해외 금융지원 노하우를 갖고 있다. 월드옥타는 68개국 7000여명의 한인 경제인과 2만1000여명의 차세대 한인 경제인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해외 현지금융 컨설팅 및 해외금융 지원 ▲중소기업 해외진출 온라인 플랫폼 사업 지원 ▲월드옥타 국내외 교육 프로그램 ▲해외 일자리



지난 1일 '신한은행·세계한인무역협회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을 마친 후 진옥동 신한은행장(왼쪽)과 하용화 세계한인무역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창출 등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